

공동체 소식



부활 제4주일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앞장서 가신 나라로
나약한 양 떼인 저희를 이끄시어
하느님과 함께 천상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부활을 경축합니다.

- 주님의 부활은 육신의 부활을 넘어, 모든 악의 세력에 대한 승리이며, 믿는 모든 이들의 희망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주신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립니다.

■ ‘부활시기’ 안내

- 삼종기도: 부활삼종기도,
- 신앙의 신비어: ‘다’ 양식

■ 첫영성체를 앞두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바랍니다.

- 대상 : 김로즈 로즈(김지혜 수산나의 녀), 다니엘 (박동희 안나의 자), 김정빈 바오로, 김정훈 로베르토(장보혜 프란체스카의 자)
- 축하식 : 5/6(주일) 교중미사 중.

■ 본당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월정기회의

- 일시: 4/22(주일), 교중미사 후.

■ 본당 봄 야외행사

- 일시: 5/13(주일) 11:00미사, 미사 후 행사
- 장소: Shawnee Mission Park (Shelter 10), Lenexa, KS 66219

■ 캔사스대교구 ‘Archbishop’s Call to Share’ 에 많은 참여바랍니다.

- 내용 : 캔사스 대교구 교구장 주교님의 자선나눔을 위한 모금에 많은 참여바랍니다.
- 참여방법 : 교구홈페이지 메뉴 RESPONDING (<https://www.calltoshare.org/>)

■ 전례 성가

시 작	예 물	성 체	과 건
55	215	504	136(3,4절)

■ 주일미사 복사

	항복사	시중복사
금 주	고평원 프란시스코	차민서 임마누엘
차 주	정예찬 미카엘	정예진 한나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김명은 안젤라	김병철 베테딕도 김경희 스킨라스티카
차 주	박태주 로마노	김정원 베드로 김말자 세실리아

■ 애찬 봉사자

금 주	조경희, 박계숙, 박주연
차 주	김시연, 박정자, 한순례, 김경돌, 이경남

■ 헌금 봉사자

금 주	이내익 베드로, 이우영 가브리엘
차 주	감영진 라파엘, 강승석 도미니코

■ 우리들의 정성

	영성체	헌금	교무금
4/15	42 명	198 달러	100 달러

+미사시간
주 일: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10:00 AM (교육관)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 조진환 베드로 jinhwon.jo@gmail.com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회장 이우석 프란치스코
M: 816.616.0033

재무 김병철 베테딕도
M: 913.710.0770

오늘의 전례



오늘은 부활 제4주일이며 성소 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성자의 이름으로 인간의 나약함을 치유하시며, 부활하신 성자의 영광을 빛나게 하십니다. 흠어진 사람들을 한 가족으로 모으시어, 착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와 일치하여 하느님의 자녀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림 묵상

착한 목자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요한 10,14-15)

밤늦도록 헤매고 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은 기쁨이 넘칩니다. 양들은 목숨을 바쳐 사랑해 주는 착한 목자 곁에 머물습니다. 사랑받은 양들은 언제나 목자를 따릅니다. 우리도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야겠습니다

정미연 소화테레사 | 화가

제 1 독서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4,8-12 <예수님 말고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또는 ◎ 알렐루야.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사람을 믿기보다, 주님께 피신함이 훨씬 낫다네. 제후들을 믿기보다, 주님께 피신함이 훨씬 낫다네. ◎
○ 당신이 제게 응답하시고 구원이 되어 주셨으니, 제가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
○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는 복되어라.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너희에게 축복하노라. 당신은 저의 하느님,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저의 하느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제 2 독서 :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3,1-2
<우리는 하느님을 있는 그대로 뵈게 될 것입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 알렐루야.

복음 : 요한이 전한 기록한 복음입니다. 10,11-18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생명의 말씀

나는 착한 목자이다



“우리는 오래전 인간이 갈 수 있는 수없이 다양한 길 중에서 ‘사제’ 라는 길을 택해 이곳에 발을 들여놓았다. 사제가 된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 엄청난 행위였다. 그래서 어느 선배는 ‘사제는 가난과 고독을 스스로 택해서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 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이 땅 위에 가난과 고독을 행복으로 이해하는 것은 어찌면, 사제만이 갖는 행복의 철학인지 모른다. 부족하게 형클어진 이 육신과 영혼으로 사제의 길을 떠나려 하다니. 이것은 분명 두려움과 기쁨인 것이다.

지나면 헛될 갈매기의 꿈을 좇으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방황하였던가? 얼마나 많은 밤을 허탈감과 무의미로 인하여 실망과 좌절을 느꼈던가... 사제직은 결코 영웅적 행위도 실리적인 이기적 행위도 아니다. 나의 응답이며, 헌신이며, 모험인 것이다. 그래서 권력과 명예와 재물의 역센 도전에 의연할 수 있으며, 편협과 고정 관념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다.

낙산을 떠나면서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태까지 그래왔듯이 수없이 많은 날이 회의를 물밀 듯 밀려오고 자주 땅에 주저앉고 싶을 것이다. 기쁨에 겨운 날보다는 살얼음을 걷는 날들이 더 많을 것이다.

그때 우리는 아침마다 졸린 눈을 비비며 쳐다보았던 성당 입구의 거울에 선배들이 남겨 놓은 구절을 기억해 내고는 위로와 기쁨을 찾겠다.”

“우리는 끝까지 끈기 있게 견디어 낸 사람들을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고 5,11 참조)

얼마 전 오래된 원고를 뒤적이다 누런 갱지 한 장을 찾았습니다. 1983년 11월 가을, 신학교 송별음악회에서 내가 부제반 대표로 했던 송별사의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잠시 눈을 감고 과거로 날개짓을 하였습니다. 송별회의 그날 밤을 떨리는 마음으로 생각해보았습니다. “주님! 내가 다시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은 부활 제4주일이며 성소 주일입니다. 1964년 바오로 6세 교황님은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 주십시오 청하여라.” (마태 9,37-38)면서 성소 주일을 정하셨습니다.

성소란 거룩한 부르심을 뜻하며 좁은 의미로는 하느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의해 사제가 될 사람이나 이미 사제가 된 사람들, 또는 수도자가 될 사람이나 이미 수도자가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제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모든 이에게 모든 것” 이 되기 위하여 ‘착한 목자’ 처럼 어떠한 위협 앞에서도 목숨을 바칠 각오로 앞장서야 합니다. 그러나 사제들도 나약한 인간의 속성을 그대로 안고 있기에, 때로는 잘못을 저지르고 때로는 실수도 합니다. 사제가 되는 수련의 길은 모든 인생사처럼 기쁠 때도 많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오늘 성소 주일을 맞아 사제들과 신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국장

그림으로 보는 복음묵상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가 아무런 의심 없이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누구는 신뢰라고 하고 누군가는 사랑이라고도 합니다.

있는 그대로 서로를 받아들여 주는 것이 바로 관계의 완성입니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요한 10,14)



임의준 신부 | 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당

말씀의 이삭

아내는 나의 힘

아내와 얘기하면서 아내가 진정으로 본질에 집중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됨. 난 사실 본질을 이리저리 돌아가며 그 핵심을 보지 않으려 피하고 있다는 걸 돌아봄. 있는 그대로의 상황과 존재 자체로서의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건 은총. 그런 시선이 아내에게 있어 참 다행이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함.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청함. 본질이 아닌 주변부를 맴돈다는 건 그만큼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사는 것이란 생각이 듦. (2017년 12월의 추운 어느 날)

가끔씩 썼던 일기를 뒤적이다 아내에 대한 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뻬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 다. 닦친 상황을 정면 돌파하기보다는 어떻게든 모면하려 하고 만나는 사람들을 제 기준으로 판단하고 본질보다는 허상을 좇고 있는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를 돌아볼 수 있게 한 아내가 제 곁에 있다는 게 다행이란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거의 10년을 함께 하면서도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아내의 진면목은 이렇습니다. 아내는 정직합니다. 없는 걸 있다고 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아픈 둘째 아이를 보면서 제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아내는 무척이나 담담하게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아이를 사랑하면 된다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지금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을 밀어내면 안 된다고. 저를 다독이며 위로했습니다. 아내에게 고맙고 그런 아내를 제게 보내주신 주님

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단순합니다. 배가 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잡니다. 아무리 힘들고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일이 일어나도 신기하리만큼 의연하게 대처합니다. 수많은 걱정거리를 안고 제힘으로만 해결하려 애쓰는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아내를 보고 있노라면 이따금 경외감마저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어찌면 주님께서 제게 진정으로 원하신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내를 통해서 제게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 말라고 그저 내 안에서 기뻐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내는 따뜻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공감할 줄 압니다. 그리고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도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아내는 항상 이왕이면 기쁜 마음을, 좋은 기운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려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이 사람은 이러니까 싫다 연락하고 싶지 않다’ 라고 얘기했더니 제게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면 당신은 진정한 친구를 만날 수 없다’ 고 충고하더군요. 직업상 아내보다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그들을 진심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는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전 아내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어진 삶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삶을 선물로 받아들이고 기쁘게 살아가려 애쓰는 아내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제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내를 통해 만난 예수님을 이젠 살아가는 매 순간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 이상호 비오 | KBS 아나운서

교리상식

교리상식

첫영성체를 할 나이가 지났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는 “어린이가 10세 전후에 영성체하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첫영성체 시기를 놓쳤다면 본당에 그 연령대의 세례준비 교리반에 등록하여 배우면 됩니다. 성인 예비신자 교리반에 등록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세례 교리교육 과정이 끝나면, 세례는 받지 않고 첫영성체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첫영성체를 하기 전에 첫 고백을 먼저 해야 합니다. 유아세례를 받았으나 첫영성체를 하지 못한 성인에게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글 『교리상식 속풀이』 | 바오로말발행